

# 한국의 건축가 9 - 김종업(4)

Korean Architect, Kim Chung-Up

김종업 건축의 해석 - 꿈과 시와 낭만의 건축

조인철 / (주)정림건축 Q.C부 팀장, 건축사  
by Zho In-Choul

◇ 연재목차 ◇

(계재월)

1. 이희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민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9701~9702)
9. 김종업 (9703~9707)

1. 김종업 건축의 바탕  
- 김종업의 일생
2. 대답내용  
- 김종업 건축과 샤머니즘
3. 대답내용  
- 김종업과 르꼬르뷔제
4. 김종업 건축의 해석  
- 꿈과 시와 낭만의 건축
5. 김종업 건축의 해석  
- 김종업 건축의 어휘

## 1. 바다호텔과 민족대성전

건축가 김종업의 작품경향을 음악이나 미술의 분야와 같이 굳이 양식의 관점에서 분류를 한다면 그는 손쉽게 낭만주의 건축가로 분류된다. 그는 건축가이면서도 시인이었으며, 더욱이 그는 시인, 화가들과도 깊은 교분을 나누는 것<sup>1)</sup>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화가 이중섭과의 관계는 남다른 것으로 기록<sup>2)</sup>되고 있다. 그의 작품이나 그에 대해서 얘기한 여러사람의 견해도 그러했지만 그는 낭만주의자였으며 꿈을 만드는 건축가였다. 그의 작품중에서 이러한 꿈의 표현이 나타난 대표적 작품이라면 바다호텔(1979)과 민족대성전(1979)을 들 수 있다. 물론 바다호텔과 민족대성전은 실현되지 못한 채 계획안으로 남겨져 있다.

바다호텔(그림1)의 경우는 덕적도 모래사장에서 제작한 후 레일을 이용하여 바다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이러한 해상호텔의 계획<sup>3)</sup>은 그가 미국에 체류중일 때 영국의 대재벌인 윌리엄씨의 의뢰로 시도된 적이 있었으며, 그는 이계획을 상당한 수준까지 구체화했었다 한다. 그때의 해상호텔계획안은 도버해협에 띄우는 것이었다. 프랑스 가레에서 런던으로 연결되는 템즈강 입구 근처에 띄워지는 해상호텔로서 객실 1천2백개에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홀을 갖추는 것이었다. 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은 약7천만달러 정도였고 160미터의 반구형이 바다에 잠기고 중앙에 120미터 높이의 엘리베이터와 덱트를 겸한 타워가 세워지고 프리웨브철제 객실을 끼우고 사면으로 오르내리는 에스컬레이터에 냉난방파이프가 지나가게 계획되었다. 중앙부에 뚫린 엄청난 공간에는 꼬불꼬불한 거리들이 펼쳐지게 하고 그곳에 데이비드 부리슨의 4차원 조각을 매달고, 이안니스 제나키스의 작곡에 따라 레이즈빔이 조각사이를 뚫고 지나가도록 하며 원통의 거대한 디스코홀은 백남준의 비디오 이미지가 좌우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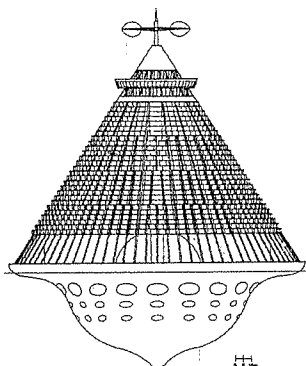
1) 강석경, "꿈의 설계도를 찾아서 외롭습니다", (문학사상), 서울:문학사상사, 통권144호, 1982, 4, pp.203-204 : "피난생활이 괴로웠던 것만은 아니다. 잿더미 속에 핀 인정의 꽃은 더욱 붉고 아름다웠다. 피난시절 그는 '멀디원'과 '금강다방'에 자주 나왔다. 공초를 비롯한 문인들과의 교류가 있었다. 베를렌스를 함께 번역했던 불문학자 전봉태가 '스타디움'에서 자살한 시기였는데 화가 이중섭과 김기천, 영화 배우 최은희도 이때 자주 만났다."  
2) 김종업, "이중섭-뭇다핀 재능의 꽃", (김종업, 건축가의 빛과 그림자), 서울:열화당, 1984, 4, pp.254-255.  
3) 김종업, "바다호텔", (신동아), 서울:동아일보사, 통권188호, 1980, 4, pp.77-80 : 미국에 있을 당시 도버해협에 계획하였던 해상호텔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상하로 모이고 흩어지게 하여 지금까지 사람들이 향유해본 일이 없는 새로운 환경을 창출하도록 계획했다. 그러나 윌리엄씨의 사업투자 계획의 변경(북해유전개발)으로 해상호텔은 무산되고 말았다. 한편 덕적도 앞바다<sup>9)</sup>의 바다호텔은 앞의 해상호텔 계획을 조금 발전시킨 것인데 객실 1,200개에 카지노도 있고 음악회나 서커스까지 공연할 수 있는 8천평의 규모였다한다. 바다호텔의 경우도 백남준의 비디오 이미지를 디스코홀 같은데서 방영할 계획을 세울 정도로 구체화되었으나 건축주였던 당시 명성그룹의 김철호 회장이 구속되는 바람에 계획안으로 끝나고 말았다. 민족대성전(그림2)은 그가 미국에 체류중일 때 황재경 목사의 제의로 시작되었다. 처음 제의받을 때의 건립위치는 북한산 뒤에 있는 조그만 봉우리<sup>10)</sup>이었다고 한다. "모든 종교의식,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극, 무용, 영화, 페스티벌, 국전, 문학의밤, 국제세미나, 축제, 그밖의 모든 문화행사를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사바티칼 컬리지를 병설한 20세기 한국문화의 전당을 마련하는 것이다." <sup>11)</sup> "기독교 1백주년기념을 위해서 기독교당이 아닌 모든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자는 데까지 발전되었습니다. 저도 기독교라는 이름을 빼고 민족이란 이름을 붙여져서 남북통일이 되었을 때 새로운 대통령이 그곳에서 취임식을 갖도록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서 5천만달러를 모금하고 나머지는 국내서 부담하자고 해서 미국서는 일부 모금까지 되었는데 한국서 교파간에 주도권싸움을 하다 좌절되었습니다. 국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태세가 되어있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멋있는 것 세울 기회를 놓쳤습니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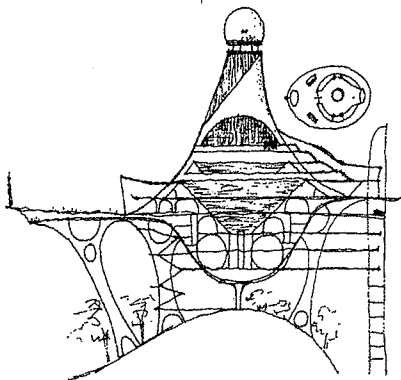
## 2. 주한 프랑스 대사관

건축가 김중업은 1959년 주한 프랑스대사 '상바르'로부터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현상설계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당시 그의 스승인 르코르뷔제의 추천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7명(누구인지, 어떤 작품을 제출했는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 없음)의 프랑스 건축가들과 기량을 겨루어야 하는 현상설계였으므로 그에게 실시설계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보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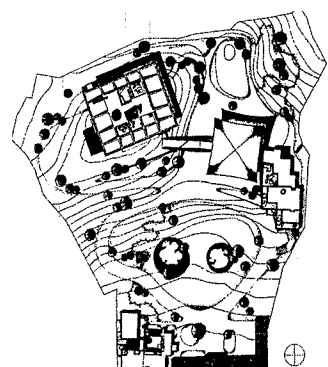
없었다. 그는 당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4주간 미국으로의 출장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출장기간중 뉴욕의 메디슨호텔의 방<sup>13)</sup>에서 계획스케치를 시작하였다. 그의 제출안이 프랑스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결국 실시설계를 하게 된다. 그의 프랑스대사관의 현상설계의 당선은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김중업 개인에 있어서는 르코르뷔제의 문하생으로서 거장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 국제무대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것일 뿐아니라 그의 향후 작품활동에 있어서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을 것은 분명하다. 어느 분야에서건 거장의 아래에서 사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선생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난 첫번째의 시도에서는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프랑스대사관은 건축디자인에 관한 불모지나 다름없던 이땅에 디자인된 건축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실시설계와 현상의 담당은 장석웅<sup>14)</sup>이 주로 했고 김중업은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지휘했다 한다.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김중업은 프랑스대사관을 위해서 입면도를 200장<sup>15)</sup>을 그렸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프랑스대사관이 하루아침에 대가의 천부적인 직감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프랑스대사관의 배치계획(그림3)은 3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치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건물의 향<sup>16)</sup>에 대한 배려와 경사지반의 높낮이에 대한 배려이다. 우선 대지의 가장 높은 곳에 3개의 동중 가장 규모가 큰 대사관저를 배치하고, 대사



(그림 1) 바다호텔



(그림 2) 민족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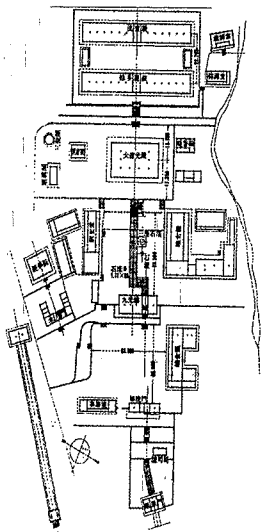


(그림 3) 주한 프랑스대사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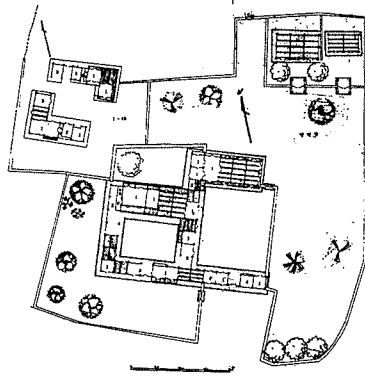
4) 최일남, "건축가 김중업씨 전시행정이 삭막한 도시 만든다", (신동아), 서울: 동아일보사, 1984, 10, p.413 : "덕적도에 가보았더니 상당히 긴 모래사장이 있었어요. 여기서 제작한 후 레일을 깔아 바다로 道水시키려고 했습니다. 총경비는 8천만달러가 예상되었는데, 1억5천만달러에 팔 계획도 세웠습니다. 흥해나 자중해에 갖다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 바다호텔의 설치위치가 제주도, 덕적도 등으로 분명치 않은 것은 호텔업의 성격상 예인선에 의해 바다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5) 조인철, "한국의 건축가(9)-김중업(2) : 대담내용-김중업 건축과 사바니즘", (건축사), 서울: 대한건축사협회, 1997, 4, p.87.  
6) 김중업, "민족대성전 계획안", (김중업, 건축가의 빛과 그림자), 서울: 열화당, 1984, 4, p.184.  
7) 최일남, 앞의 책, p.412.  
8) 김중업, "상바르대사-한국에 문헌 프랑스인", (김중업, 건축가의 빛과 그림자), 서울: 열화당, 1984, 4, pp.257-258.  
9) 김중업과는 같은 평양출신으로 서산부인과의 구조설계를 담당했던 구조전문가 마중경선생과 필자의 대담, 1997, 4.  
10) 안병의외, "창간 특별취담/김중업을 다시 말한다.-혼자 꿈꾸던 건축가, 우리는 그를 끌어안지 못했다." (격월간, PA), 서울: 건축세계사, 1997, 1, p.17 : "저(김원)는 김선생님이 그 작품을 할 때 입면도만 200장을 그렸다는 전설을 믿고 그 점을 존경합니다."-건축가 김원은 설계도면작성에 지친 자신의 설계사무실의 직원을 독려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지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의 업무공간은 대사관저보다는 낮은 위치에 배치시키고 경사 브릿지로 연결하였다. 건물 3개동의 진입은 대지의 출입구로부터 직선으로 올라가게 하지 않고 대사관저로 올라가는 길과 업무공간으로 올라가는 길을 양쪽으로 갈라지게 해두었다. 방문객이 정문을 들어서면 바로 각 건물의 정면을 쳐다볼 수는 있지만 진입 하면서 점차 건물의 측면으로 비켜서 접근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동선의 유도는 자신이 디자인한 건축이 관찰자에게 어떻게 보여지도록 하겠다는 건축가의 의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땅이 갖고 있는 본성을 최대한 인정하고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대지의 등고선을 따라서 길을 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이 바로 전통건축의 건물배치기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전통건축의 배치기법(그림4)에서는 넓고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대지위에 하나의 축선을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가능한 대칭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축이 있기는 하지만 비틀어지기도 하고 직각으로 꺾기기도 하면서 결국 하나의 축선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개의 축이 형성되면서 건물이 배치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축의 형성은 소위 해체주의에서와 같이 군대제식훈련과 같은 경직된 질서에 식상한 전위 건축가들의 지랄발광과 같은 질서의 해체와는 근본에서 다르다. 전통건축에서의 축의 형성은 아마도 울망졸망한 산이 많은 우리 땅의 지형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아주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의 시점에 와서도 프랑스대사관이 앉혀진 대지에 동일한 조건으로 현상설계에 붙여진다면 아마도 지형을 깎아서 하나의 축으로 곧바로 진입하게 하는 여러개의 안이 나올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어쨌든 배치도를 살펴보면 김종업은 3개의 건물을 배치함에 있어서 하나의 축을 고집하지 않고 지형이 갖고 있는 본래의 성격에 따라 건물을 앉히려고 고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고해서 3개의 건물이 서로간에 아무런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는 주의 깊게 분석해봐야 한다. 3개의 건물이 하나의 축을 공유하게 한다면 서로를 관련시키는데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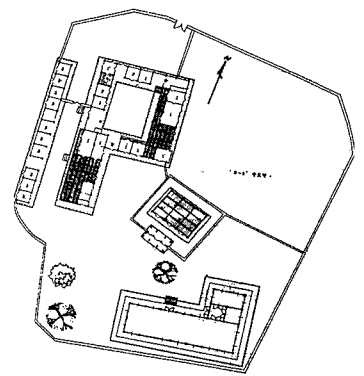
서는 손쉬운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김종업은 프랑스대사관이 요구하는 기능을 3가지로 분류하고 (현상설계의 조건인지는 밝혀진 바 없음) 하나의 건물안에 모든 것을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3개의 동으로 분리하여 정문 출입구에서 보았을 때 높은 언덕에 위치한 건물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지는 그러한 기분을 선호했던 것 같다. 3개의 건물이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건물의 사이사이로 남겨지는 공간들이 연출하는 막힘짐과 틱어짐의 시각적인 변화에도 신경을 쓰면서 건물간의 위계를 표현하려는 듯 높낮이에도 상당한 배려가 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에는 대사관저와 대사관을 브릿지로 상호 연결함으로써 건물상호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전통건축의 특성은 건물개개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간의 관계<sup>11)</sup>에 더 큰 의미가 있다. 한국전통건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서양의 건물처럼 날개로 떼어서 건물개개로 해석한다면 건물의 형태에 대해서만의 얘기가 전부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전통건축은 목구조가 갖고 있는 한계와 서양건축에 비하여 그형태에 있어서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고 따라서 현대건축과의 관계에 있어서 별개의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회마을에 가서 충효당이나 양진당을 보고 왔다고 할 때 왜 형제간의 두채의 주택(그림5,6)이 하나는 남쪽의 산을 바라보면서 남향을 하고 있고 하나는 동쪽의 산을 바라보면서 동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 관심이 지나칠 경우가 많다. 필자는 판단하건데 분명히 형님집과 아우집은 서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서로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프랑스 대사관에서의 3개의 건물은 떨어진 거리, 건물의 향, 높낮이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이상해질 정도로 서로간의 밀접한 관계<sup>12)</sup>를 가지도록 배치되어 있다. 건물 각각에 대한 해석들은 많이 있어 왔다. 앞에서 얘기한 건물의 배치나 자연지형의 이용기법을 보면 전통사찰의 배치나 소재원에서의 느낌이 그대로 전달된다.



(그림 4) 해인사 가람배치



(그림 5) 하회마을 양진당(형님집)



(그림 6) 하회마을 충효당(아우집)

11) 최일남, 앞의 책, p.407 : "화제를 바꿔 보지요. 김선생님은 집을 지을 때 맨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선 향입니다. 남향이 아니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12) 김용욱, (東洋學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통나무, 1986, p. 196 : "동양인들은 공간자체도 시간적으로 파악해버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외적 형태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공간개념은 동양건축양식의 공간처리에서 특수한 관계적양상(relational mode)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물론 이런 문제는 본론의 주제에서 어긋나므로 그논지를 여기에 전개할 수는 없다. 절대시간의 성립이라는 것은 시간의 공간화라는 문맥에서 이해될 때 가장 정확히 이해한다는 추상적 언급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대사관의 건물개개의 형태적측면의 해석은 지붕에 집중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사관저의 것보다는 대사관의 지붕(그림7)이 많이 거론된다. 거의 정사각형의 평면에 전통건축에서와 같이 양곡(귀솟음)과 안허리 곡선을 가진 지붕이 띄워져 있다. 안병의의 말<sup>14)</sup>에 의하면 초기안에는 지붕이 건물몸체에 붙어 있었다고 한다. “프랑스 대사관저는 단층건물인데 공사 당시에는 지붕이 건물에 붙어 있었어요. 내가(안병의) 보기도 좀 답답하구나 했지요. 하지만 대안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분(김중업)이 와서는 도면을 붙여놓고 한참을 들여다 보더니 1미터 80센티 가량 공중에 띄웠습니다.” 모든 찬사를 한몸에 받았던 이 지붕은 얼마지 못해서 변형이 되고 만다. “김중업 선생이 그대사관을 설계했을 당시 그보다 연배가 많았던 동료 건축가들은 좋은 얘기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어요. 누군들 그정도는 못하겠느냐는 식이었습니다. 한국사람이면 그만한 건물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식의 막연한 느낌에 따른 좋다 나쁘다라는 식의 편견이 많았지요. 뭔지 모르지만 내가 좋다면 다좋은 거라는 식의 작품활동과 강의를 하던 분도 있었으니까요<sup>15)</sup> 프랑스대사관의 지붕의 경우 몇몇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결국 이광노의 주도하에 윤도근이 변형의 장본인(좀더 구체적인 사실 규명이 필요한 대상임)으로 나타난다. “나중에 대사관 지붕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선생님(김중업)이 외국에 오래 계시실 때 었습니다. 귀국하신 선생께 찍어 놓은 사진을 보여 드리며 말씀드렸더니 ‘응 그래?’ 하시고 마는 거예요. 아주당황스러운 기억입니다.<sup>16)</sup> 하지만 김중업의 상바르 대사에 관한 글을 보면 그의 안타까운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4.19때엔 본설계가 완료됐고 가을에 착공해서 몸체공사가 끝나갈 무렵 5.16군사혁명이 일어났다. 화폐개혁이란 홍역을 치르고 62년 봄, 그래도 의적이 서대문 언덕위에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섰다. 나는 62년 서울시 문화상을 받았고, 65년 드골 대통령에게 불려가 파리에서 프랑스 국가 공로 훈장을 받았다. 앙드레 말로 문화상이 과분한 저력을 냈다. 이작품은 외국에서 더욱 유명해졌다. 71년말, 삼일로빌딩 준공뒤에 본의 아니게 다시 프랑스 생활을 해야 했다. 파리에선 자주 상바르와 만났다. 한국을 더없이 사

랑하는 그는 내가 조국에서 살 수 없다는 사실에 소스라치도록 놀랐고 아쉬워 했다. 5년동안 쉬깎이려는 나의 기력을 받쳐 주었다. 꼭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며 나는 미국으로 떠나야 했다. 80년 조국으로 돌아온 나는 끝내 그를 못본 채 그 유해만이 이곳에 돌아와 해인사에 묻히게 되었다. 애석하고 원통하다. 그가 그리도 아끼던 대사관은 그도 나도 없는 사이에 만신창이가 되었으니, 모처럼 돌아온 그의 넋을 대할 면목이 없다.<sup>17)</sup>

### 3. 구 제주대학본관

김중업이 구 제주대학본관(이하 제주대학본관)의 설계를 맡게 된 것은 당시의 제주대학장으로 부임한 ‘문종철’ 제주대학장과의 인연에서 시작되었다. ‘문종철’은 제주대학학장이 되기 전에는 법제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김중업은 그의(문종철) 서울의 집을 설계하던 중 제주대학장으로 부임한 그의 요청으로 제주대학 설계에 임하게 된다. 이당시 김중업에게 있어서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다 한다. 인의동에 있던 사무실(12명의 직원)도 철수하고 성북동에 있는 주택(3명: 김석철, 김석재 등)에서 칩거하던 시기였다. 제주대학본관(그림9)의 실시설계의 담당은 주로 김석재, 김석철이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석철의 글에는 이미 끝나있던 설계를 다시하게 되었다고 하며, 기둥의 위치만 살리고 전면적으로 수정되었다 한다.<sup>18)</sup> 제주대학의 설계는 제주도 같은 곳에 그러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문교부로부터 거부당했던 것<sup>19)</sup>이었으나 제주대학장인 문종철학장의 노력으로 해결이 되었다. “우선 목수들을 한사람씩 훈련을 시켰다. 베니어판위에 내가 직접 먹줄을 쳤고, 업자에게는 특수공법을 알기 쉽게 도해 해주고... 어떻게든 새롭고 감동적인 건축

13) 정인하, “김중업건축:건축의 본위적가치에 대한 탐구”, (적월간PA:김중업), 서울:건축세계사, 1997, 1, p.39 : “대사의 집무실과 대사관저는 마치 자기장을 형성시키는 중심처럼 건물주위로 하나의 장(場)을 형성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건물에 형성된 정은 마치 여러개의 자기장이 충돌하면서 전혀 다른 모양의 자기장을 만들어 내듯이, 건물서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보는 이들에게 특이한 체험을 유발시킨다. 즉, 이곳을 거닐다 보면 높이와 스케일이 다른 건물들 사이에서 공명과 간섭, 복합성이 계속해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14) 안병의외, 앞의책,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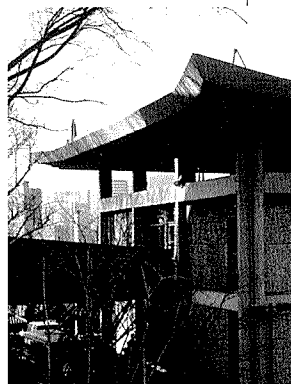
15) 안병의외, 앞의책, p.10.

16) 위의책,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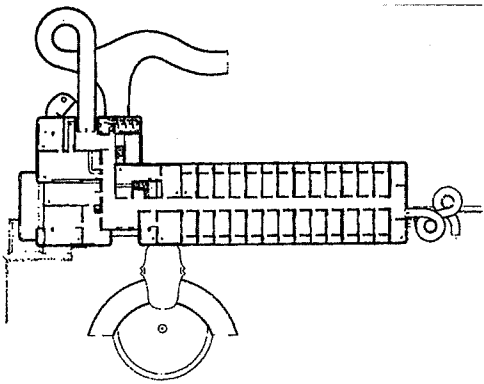
17) 김중업, “상바르대사-한국에 묻힌 프랑스인”, (김중업, 건축가의 빛과 그림자), 1984, p.258.



(그림 7) 주한 프랑스 대사관(변형전의 지붕)



(그림 8) 주한 프랑스 대사관(변형후의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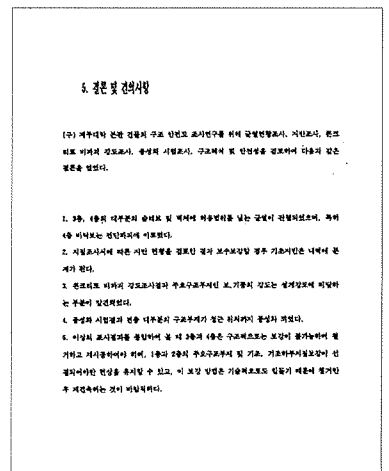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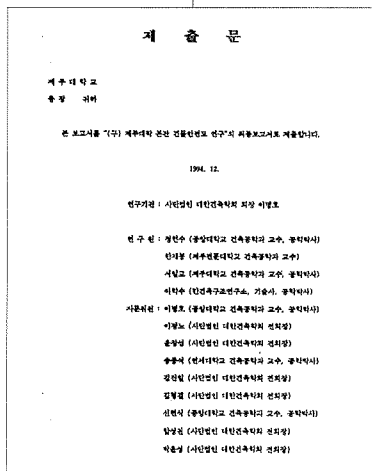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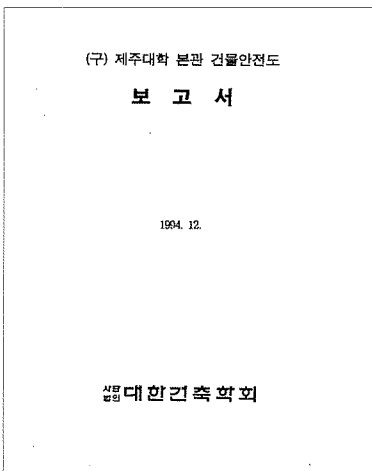


(그림 9) 구 제주대학본관 3층 평면도

물을 세운다는 것만이 즐거웠다... 준공되던 날 감격한 나머지 그는(문종철) 옥외의 회전계단에서 실족했고, 목수들은 자기손으로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흐릿함에 취해 있었으며, 업자<sup>20)</sup>는 제주 제일의 업적을 남겼다.”

제주대학본관은 그의 작품중에서 그것이 위치했던 섬의 낭만적인 분위기에 맞추어 설계된 가장 낭만적인 작품으로 꼽을 수가 있다. 설계기간 2년동안 다른일 없이 이작품에만 매달렸을 뿐만아니라 건축주라 할 수 있는 학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작품이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그가 이작품에서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하지 않았겠느냐하는 생각이 든다. 건축가의 일생 중에서 충분한 설계기간과 건축주의 전폭적인 신뢰하에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그리 자주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대학 본관은 김중업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대표작품이다. 이 작품은 김중업 자신도 말하듯이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안고 있다. “난도시 제주대학 본관을 좋아하지 않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나 본인(김중업)은 대한민국 인건비가 싼데 마음대로 어떤 형태든지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60년대의 한국건축이다. 60년대가 아니면 못 만든다. 70년, 80년이 되면 경비가 비싸서 못 만드니까 일본이나 구라파에서도 못 만든다. 따라서 이게 1960년대의 한국의 고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sup>21)</sup> 솔직하게 말하자면 필자는 제주대학본관에 가보질 못했다. 제주대학의 본관을 직접보지 못하고 제주대학본관에 대하여 평론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필자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주대학본관은 이미 철거되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가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갖고 있는 것은 작품집에 있는 평면도와 오래전에 찍힌 사진, 그리고 어렵게 구한 철거되기전 슬라이더 몇장이 전부이다. 그러나 제주대학본관의 경사로만을 보아도 르코르뷔제의 사보이 빌라에 못지않은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보이빌라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프랑스정부에서 보존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인에 의하여 지어진 조선총독부청사의 철거, 보존의 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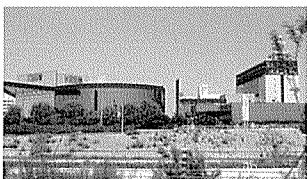
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순수 우리건축가의 설계와 우리의 목수의 손으로 지어진 제주대본관은 순식간에 철거되었다. 제주대본관의 사라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몇몇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제주대본관의 보존여부에 대한 논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3년 2월 5일 건축가협회와 제주대학교의 주관으로 “구 제주대학본관보전을 위한 세미나<sup>22)</sup>”가 열렸다. 제주도 현지에서 열린 세미나의 결론은 어떻게 보존 또는 보전을 하느냐가 문제였지 철거나 존치냐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날 제주대본관은 이명호교수(중앙대 건축공학과)가 회장이었던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건물안전도 보고서(그림 10-1,2,3)(연구책임;정현수교수-중앙대 건축공학과)’ 몇장에서 얻어진 결론으로 운명을 달리했다(96년3월). 결론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3층과 4층은 구조적으로는 보강이 불가능하여 철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하며, 1층과 2층의 주요구조부재 및 기초, 기초하부지질보강이 선결되어야만 현상을 유지할 수 있고, 이 보강방법은 기술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철거한 후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23)</sup> 전임회장단으로 구성된 건축학회의 자문회의에서는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추진 함으로서 제주대학본관은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날짜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건축학회는 건축가협회에 통보를 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통보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통보를 해주었을리는 만무하다. 제주대학측에서는 당시 보존 세미나에도 참석했던 사람들이 연구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보고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건축가협회와는 별개로 사단법인 건축학회의 의도를 알 수 없는 보고서에 의해서 제주대학본관은 사라져버렸고, 보존이나 보전이나로 언성을 높이던 세미나는 웃기는 소리가 되어버렸다. 건축학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문화적인 측면이나 한국의 근,현대건축에서 이작품이 차지하는 의미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없고 무슨 아파트의 부실공사 현장의 구조안전진단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3층과 4층은 구조적으로 보강이 불가능하여 철거후 재시공” 이러한 용어는 아파트 부실 공사 현장의 책임감리자나 행정관청에서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문구이다. “1층과 2층의... 보강방법은 기술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철거한 후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도대체 전문가로서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인가 의문시되는 문장이다. 그래서 결국 1,2,3,4층 모두가 보강 불가능이니 철거하라는 뜻이다. 제주도 현지에서 열린 보존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구조전문가<sup>24)</sup>가 참석하여 보강부위, 보강방법, 보강공사금액, 심지어 특기시방서까지 제출되었다. 어느 쪽의 구조전문가가 더 탁월한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건축학회에서 이러한 사형선고와 같은 이러한 보고서가 제출된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우리 선배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좋은 작품들이 똑같은 운명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모음식점에서 열린 대한건축학회의 이 안건에 대한 자문회의에는 대한건축학회 전임회장님들이 참석했다한다. 제출보고서에 적힌 자문위원들 중에는 구조관련 교수 뿐만 아니라 제주대학본관의 보존 세미나에도 참석하였던 이광노교수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올라 있다. 물론 회의록 같은 것은 남겨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문종철, 그이도 저승엘 가고 제주는 공허하게만 느껴진다. 이작품이 각국의 건축교과서에 21세기를 예시하는 작품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시니컬하기만 하다. 제주도의 역사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기념관으로 살렸으면 좋으련만 우리 것을 우리가 아끼지 못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sup>25)</sup>

#### 4. 올림픽 상징 조형물

건축가 김종업은 79년 영구귀국한 이후 대형프로젝트로서 바다호텔과 민족대성전이 실현되지 못하고 계획안으로만 끝나고 이렇다할 프로젝트를 만져 보지 못한 상태로 몇 년 세월을 보냈다. 다행히 88년 하계올림픽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게 됨으로서 이와 관련된 국제방송센터(KBS방송국;그림11)와 올림픽상징조형물(그림12)의 현상공모에서 당선되게 된다. 올림픽상징조형물의 현상공모의 지침내용(1984,12)을 살펴보면 1차 예비공모에서 5명의 작가를 선정하고 지명된 5명의 작가와 함께 총10개팀이 본공모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결국 예비공모 당선작가로 장태현, 오인환, 강건희, 오기수, 노재승과 본공모 지명작가 김종업, 장석웅, 김세중, 최기원, 오휘영이 경합을 하게



(그림 11) KBS방송국



(그림 12) 올림픽 상징 조형물

된다. 현상설계진행의 불합리성에 대하여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다. 결국 현상설계의 최우수작 김종업, 우수작 김세중의 안이 채택되었는데 최우수, 우수작자에게 규모 조정의 이유로 재출품(합작요구가 있었음)을 요구하여 결국 김종업의 작품이 본공사 심사에서 채택되었다. 현상설계의 당선안은 높이 24m, 폭이 37m인 문을 상징화한 작품이었다. 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형물의 형태는 문을 상징화하였는데 문을 상징화한 이유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한다는 행위는 탑 아니면 문이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대지의 상황을 살펴볼 때 올림픽회관이 77m의 높이로 솟아있는 상태이므로 김종업은 위로 솟는 것보다는 수평으로 펼쳐지는 형식을 채택하였다. 수평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도 날개의 이미지를 가지게 디자인이 되어 수평적이면서도 하늘로의 상승을 의도하였다. 조형물 앞의 수공간은 부산 충혼탑이나 육군박물관에서처럼 거울과 같이 대상을 투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조형물의 날개부분의 연결구조물은 원래 당선안에서는 없었으나, 철골연결부가 만들어지고 올림픽 오륜표시가 그려졌다. 올림픽조형물의 현상설계의 응모안의 구상스케치에서부터 2차규모조정 실시설계납품까지의 전과정은 과재환씨(건축가, 현 맥건축)가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선안과 실제로 지어진 상태를 비교하여 보면 높이와 폭에 있어서는 변경이 없었으며, 단지 날개의 부분이 당선안 70m에서 62m로 변경<sup>26)</sup>되었다. 김종업의 부인 김병례와의 대담<sup>27)</sup>에 의하면 높이에 있어서도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증언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닌 듯하다. 또하나의 커다란 변경은 상징조형물 내부의 공간을 전시설, 기념관 등으로 계획되었다가 삭제된 것이다. “수차에 걸친 규모조정 내용을 일일이 비교해보는 일은 그 리 큰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상설계에서 당선작이 선정된 후에 최우수 및 우수작자에게 재출품을 위촉하면서 규모가 확대되었다가 다시 축소되고 하는 등, 몇차례에 걸쳐 규모 조정이 따랐던 것은 단순한 형태변형의 수정요구가 아니라 조형물내부에 전시설, 기념관 등의 내부기능을 담는 활용시설을 구비하느냐 마느냐하는 문제 때문이었다”<sup>28)</sup>

18) 김석철, “영원한 도전”, (공간), 서울:공간사, 1988, 6, pp.37-39.

19) 송효상, “김종업과 그의 현대적 고전주의”, (공간), 서울:공간사, 1986, 3, p.44.

20) 김석운, “제주에서 띄우는 글”, (건축가), 서울:건축가협회, 1993, 2, pp.24 : 당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무속고등학교장으로 계셨던 향토사학자이기도 한 김선생(김천음)이 세워놓은 제주대학교본관의 안내문 전문에 ‘시공은 주식회사 서해의 전신인 대영토건이 담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21) 안병의, 장석웅외, “건축가 김종업선생 추모좌담회”, (건축가), 1988, 5, p.28.

22) 안병의, 김정동외, “구 제주대학 본관 보강을 위한 세미나”, (건축가), 서울:건축가협회, 1993, 3, pp.38-50.

23) 정현수외, ((구)제주대학본관 건물안전도 보고서), 서울: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1994, 12, p.16.

24) 당시세미나(안병의, 김정동외, 앞의책)에는 구조설계의 실무를 하고 있는 C.S구조연구소의 김종수가 참석하여 제출한 내용을 보면 ‘1.보수·보강공사, 2.구조보강설계, 3.특기시방서’의 순으로 상세한 설명과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

25) 김종업, “문종철-그와 함께 제주에 심었던 꿈”, (김종업, 건축가의 빛과 그림자), 서울:열화당, 1984, 4, p.259.

26) 이일훈, “정평을 위한 밀자리 고름”, (공간), 서울:공간사, 1989, 7, p.48.

27) 김병례의 증언에 의하면 부산의 충혼탑의 경우도 실제 계획된 높이 보다도 낮아진 상태로 세워졌다고 함.

28) 이일훈, 앞의 책, p.49.